

## 27. 맹수들 모양으로 예언된 역사(2)

2012. 7. 0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빛 새벽 시간을 맡고 있는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 연구의 근본적 자세를 말하면서 다니엘 7장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말했습니다. 오늘 부터는 다니엘 7장을 좀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쉽지 않으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 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숩뜨릴 것이며.

1. 지난 시간에 상징과 암호로 기록된 예언 계시에서 상징과 암호를 성경이 풀어놓은 것을 찾아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다는 백성과 열국과 나라와 방언들 뜻하는 것이고 바람은 전쟁을 뜻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등장하는 짐승들, 곧 맹수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말씀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예,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이 짐승을 해석한 말씀이지요. 다시 한 번 봉독하면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숩뜨릴 것이며”라고 했지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천사는 그것이 땅의 넷째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짐승부터 네 마리 짐승이 다 땅에 나라들을 상징하는 암호인데 첫 짐승은 첫 번째 나라, 둘째 짐승은 두 번째 나라, 셋째 짐승은 세 번째 나라라고 해석하면 맞는 해석이지요. 그런데 17절에는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라고 했습니다. 네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했는데, 23절에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했으니 해석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요. 이런 기록은 이 네 짐승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민주 공화국이 아니고 왕국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맹수로 표상된 이 네 짐승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로 뭉치는 지역에서 전쟁을 통하여 세상에 등장하는 네 왕국, 또는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 예, 목사님 아주 분명하네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국이군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왕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 왕국이나 첫째 왕국이다, 둘째 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답: 아니지요. 그것도 성경이 해석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 사람형상으로 표상한 세계 역사를 예언한 것을 공부했지요. 금 머리부터 진흙 발끝까지 어떤 나라인지 설명이 있습니다. 금 머리가 바벨론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나라를 찾는 것이 쉽지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제국이 된 나라를 찾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찾은 네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그런데 7장에 넷째 짐승의 모양 중에 어떤 부분과 그것을 설명한 것과 2장의 넷째 나라를

설명하는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가 2장의 넷째 나라와 동일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 구절들을 대조해보지요. 먼저 2:40을 읽어보지요.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단2: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숩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숩뜨리고 빵을 것이며.

애청자들께서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강하기가 철 같고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7:7을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또 읽으세요.

[단7: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숩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예, 넷째 짐승은 이빨이 철입니다. 그것도 큰 철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부서뜨린다고 했는데, 2장의 넷째 나라와 동일한 성질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넷째 나라는 2장의 넷째 나라인 로마입니다. 그러면 앞의 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답이 나옵니다. 2장의 네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3. 정말 성경은 스스로 문제를 해석하는 모든 장치가 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7장의 넷째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는 2장의 철 나라와 같은 나라라고 분명한 언어로 기록했군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들이 왜 짐승, 그것도 맹수로 상징했을까요?

답: 내가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려고 했다는 말을 했지요. 재미있는 것도 포함이 되었겠지만 세상 왕국들에 대한 심각한 사실을 지적하는 암호 표시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짐승에서 진화하였다고 말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으스대지요. 사람이 스스로 가치를 짐승에 다 두고 있는 것을 아프게 꼬집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인간들의 왕국은 맹수같이 사납고 잔인하다는 것을 은근히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표상할 때 주로 동물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기이한 일입니다. 지금 미국은 독수리로 상징하고 있지요. 캘리포니아는 곰으로 상징하지요. 것처럼 이 네 왕국이 어찌면 자기 나라들을 이런 짐승으로 상징했는지 모르지요.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바벨론은 자기 나라를 날개달린 사자로 표상한 것이 바벨론 발굴로 드러났지요. 로마는 독수리로 상징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맹수로 표상한 것은 세상 왕국들이 맹수처럼 사납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과 폭정으로 국민을 다루는 모습이 맹수들의 성질과 같다는 것을 드러내지요. 이제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의 나라로 표시됩니다. 맹수와 사람 이렇게 대조되어 보여주지요.

4. 아, 그러니까 세상 권세의 정치적 성질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말이군요.(예, 저는 그렇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난 각 짐승의 모습들을 설명하셔야지요.

답: 우리가 지난번에 7:1~8절을 읽었는데, 그래도 다시 읽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한 짐승씩 그 표현들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7:4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요.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고 하지요. 짐승과 새의 왕의 결합체입니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로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상이 바벨론의 상징이라는 것이 고고학의 바벨론 발굴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본 다니엘은 그 첫 짐승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을 당장 알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5.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자세히 말씀해주시지요.

답: 7:4에 내가 보는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다고 했지요. 즉 다니엘이 보고 있는 동안에 날개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살아 있는 동안 나라가 약해진다는 사실인데요, 날개만 뽑힌 것이 아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섭니다. 사자가 네 발로 서 있을 때에 힘쓰기가 좋습니까? 두 발로 섰을 때에 힘을 더 잘 쓸까요? (당연히 네 발로 서 있을 때지요.) 그러니까, 두 발로 섰다는 것은 제재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까. 생각해봅시다. 짐승이 짐승의 마음으로 있을 때 사납고 강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받았을 때 사납고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짐승 마음으로 있을 때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다니엘이 살아 있을 동안 약하여지고 마침내 망할 것이라는 표상입니다. 과연 바벨론은 다니엘이 살아 있을 동안 망했지요. 우리가 5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예언이고 정확한 성취입니다.

6.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 왜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망했을까요?

답: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원년을 기원전 605년으로 보는데, 그것은 통일 제국을 이룬 때를 기점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43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일므로닥이 뒤를 이었는데, 2년만에 매부에게 피살당하고 매부가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그가 네르갈살레셀인데 그는 4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지요. 그 아들은 어렸습니다. 그가 라바시 마르독입니다. 그런데 그의 재위 2개월 만에 이모부, 곧 느부갓네살의 다른 사위인 나보니더스가 그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가 바벨론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의 아버지이지요. 벨사살과 동위 왕을 했지요. 왕족 사이에 반란이 잦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지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론의 군림기간입니다. 대략 66년쯤 됩니다. 다니엘이 보는 사이에 망한 것입니다.

7. 바벨론을 이어서 일어난 나라가 곰으로 표상되었군요. 다니엘 2장과 비교하면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겠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는 원래 메디아의 봉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뛰어난 군주가 페르시아를 통치하면서 오히려 메디아를 봉신국으로 하고 세계적 제국이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지요. 단7:5 “다른 짐승 곧 들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곰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인데 그러나 잔인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곰을 잔인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13:8]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곰의 잔인한 공격을 묘사한 말이지요. [잠28:15]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이 말씀도 곰의 잔인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그 법률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하는데 특히 잔인했지요. 6장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한 법령이 그 한 예이고 에스더 사건에서도 그랬지요. 이 곰이 한 편 발을 들었고, 입에는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습니다. 곰이 발을 들 때는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페르시아의 호전성을 나타내지요. 입에 문 갈빗대는 공격해서 상대방을 정복한 것을 가리키는데 세 짐승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나라이지요. 기억할 만한 세 나라를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8. 그 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마도 페르시아를 대적할만한 강대국들이었겠네요?

답: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리디아, 바벨론 애굽입니다. 페르시아가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 국가들을 복종시키는 일을 하면서 맨 먼저 점령한 나라가 리디아였던 것 같습니다. 리디아는 지금 터키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547년 12월에 점령했습니다. 당시 리디아의 왕은 크외수스였는데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한 크외수스는 자기 신의 신전에 가서 신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새가 지휘하는 군대가 아니면 너희를 이길 수 없다는 신탁이 왔다고 합니다. 크외수스는 아주 안심했지요. 노새가 군대를 지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 전쟁을 리디아가 이긴다는 신탁이라고 해석한 것이지요. 그런데 패전했습니다. 크외수스는 화가 나서 그의 신전에 다시 가서 잘못된 신탁을 찢었다고 따졌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네가 신탁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대네요.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 따지니까, 노새가 어떤 짐승인가, 그것은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난 것이지. 고레스는 평민과 왕족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노새로 표상한 것인데 네가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했을 뿐이라고 대답이 나왔답니다. 고레스의 아버지는 페르시아 평민의 아들이었는데 메대 공주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신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을까하고 일화를 소개했는데 별로 흥미가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9. 성경 이야기만 계속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는지 모르는데 잠깐 의식을 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두 갈빗대는 어디지요?

답: 두 갈빗대는 539년에 정복한 바벨론이고 나머지는 525년에 정복한 애굽입니다. 이렇게 하여 페르시아는 명실공히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지요. 그리고 꿈은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가 정복을 위한 전쟁을 많이 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말 페르시아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력을 소모하고 마침내 패망하게 되지요. 다리오 3세가 알벨라 전투에서 알렉산더에게 패하고 페르시아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세계적 제국을 건설한 539년부터 331년까지 200년 남짓 세상을 지배했군요.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생김새가 특이합니다. 목사님이 한 번 읽으시지요.

[단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표범 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넷이고, 새 날개 넷이 달렸습니다. 날개는 성경에서 빠른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이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합1:8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이 말씀은 표범이 빠르고 독수리가 나는 것이 빠르다고 말 했는데,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새 날개가 넷이나 달려 있으니 빠르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알렉산더의 헬라제국입니다. 그는 20세인 336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22세가 된 334년에 출병해서 이듬해인 333년에 이수스(Issus) 전투에서 바사군을 이겨 소아시아 일대를 장악하고 332년에는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을 지나 알벨라(Arbela) 전투에서 바사를 영원히 멸망시킨 후 4개월 이내에 바벨론, 수사, 펠세폴리스 등 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330년에는 북쪽에 있는 옛날 메데의 수도였던 엑바나타를 점령하고 동쪽으로 가서 서북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인더스강을 지나 계속 진격하려 했으나 부하의 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했던 바벨론의 옛날 수도인 바벨론을 그의 새 제국의 수도로 정하고 그의 거대한 영토의 행정 조직에 착수하였으나 연속된 폭음 후에, 습지열이라는 말라리아에 걸려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그 거대한 제국을 자손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323년 6월에 죽었습니다.

어떻든 새의 날개 넷이 상징하는 신속성을 잘 성취시킨 알렉산더의 정복 행동이지 않습니까.

10. 그런데 왜 이 짐승은 머리가 넷입니까? 세상에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답: 여기 등장하는 네 마리 짐승은 꿈을 빼고는 이렇게 생긴 짐승이 세상에 없지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나 머리가 넷인 표범이 있을 수 없지요.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지 위하여 암호로 주는 표상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계시적 형상이라고 한다는 말은 아마 지난번에 했지요. 머리가 넷으로 표현한 것은 알렉산더의 나라가 넷으로 분열될 것을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임종 때 둘러선 장군들이 제국의 장래를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나라를 상속할 것이냐?”는 물음에 왕은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대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장군들은 저마다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12년간이나 전쟁

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장군이 알렉산더의 나라를 사 등분하여 각각 차지하고 자기 이름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입니다. 이리하여 **머리 넷이 있으며**라는 표상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머리가 넷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다음은 네 장수가 차지한 영토들은 이렇습니다.

- ① 프톨레미-애굽, 팔레스틴, 시리아 일부
- ② 카산데르-마게도니아, 그리스
- ③ 리시마쿠스-트라키아, 소아시아 대부분
- ④ 셀류쿠스-바사 제국의 대부분, 소아시아 일부,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입니다.

그러나 20년 후에는 리시마쿠스의 나라가 셀류쿠스의 나라에게 대부분 빼앗기고 고을(Gaul)쪽 에게도 빼앗겨 없어지고 세 나라만 남았다가 이것도 마침내 하나씩 하나씩 넷째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특히 이 짐승에 대하여 권세를 받았더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 짐승이 이처럼 신속히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 강한 세력이 주어졌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롬 13:1)

11. 참으로 예언이 절묘하게 성취되었군요. 머리가 넷으로 표상한 것 정말 기발한 표상입니다. 그리고 표범에다가 새 날개, 그것도 넷이다 달렸다는 것과 알렉산더 대왕의 신속한 세계 정복 아주 기막힌 표상입니다.

답: 그렇지요. 나는 이 문제를 공부할 때 아주 두꺼운 서양사 책 두 권을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이렇게 자세히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주 정확했지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생각하게 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확인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면서 진리에 굳게 선 신앙생활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12.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확실한 증거를 예언과 성취를 통하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확실성을 굳게 믿고 오직 진리를 따라 올바른 믿음으로 생활하도록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